

화면으로 대장경 열람 '불교 세계화 기여'

대장경 전산화 입력완료 - '정보화 사회와 불교의 변화' 특별좌담 본사·장경연 공동주최

사회: 12월 초면 고려대장경이 한자로 초벌 입력 되어, 세계적인 문화재 대장경을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토론에 앞서 대장 불사의 의미부터 새겨보도록 하죠.

상태용: 팔만대장경의 전산화는 불교가 본래의 모습을 갖게하는 진정한 '불교개혁'이라고 봅니다. 승가와 재가를 나누었던 경전의 높은 벽이 사라지고, 앞으로 승가 본연의 모습인 '수행'이 더욱 요구되고 존중받는 시대가 올

지난 10월 15일 멀티미디어 전자저서판 '부다피아'를 개통하여 새로운 매체포교의 장을 연 본지는 해인사대장경연구소(이하 '장경연구소')와 공동으로 '정보화 사회와 불교의 변화'를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좌담회는 사회적 관심속에 진행된 고려대장경의 전산화 작업이 마침내 오는 12월 초 총 4천4백만자에 달하는 고려대장경 원전을 온전히 입력하게 되는 뜻깊은 시점에 맞추어 마련됐다.

대장경 전산화 작업은 그동안 장경연구소에서 소장 종림스님을 비롯한 8명의 전문 연구원들과 45명에 이르는 입력요원이 참여해 추진되었다. <편집자 주>

약 등이 선행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이룰 것입니다.

다시말해 불교가 종교로서 진정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사회: 종단의 통일성, 투명성이 불교 전산화와 정보의 광대한 공유로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군요.

상태용: 그렇습니다. 민주적인 불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일화 된 종무행정 전산망을 통해 '전 불교인의 소리'가 종단에 여과없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김형균: '사찰문화재가 일반인에게 쉽게 공개되며 공유될 수 있다는 변화도 지적해야 합니다.

사회: 성교수님의 '전 불교인의 소리'는 신선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전산화가 종교로서 불교의 위상을 새롭게 가져올 부분도 놓칠 수 없을 것 같은데.

합적: 불교의 전산화는 지금까지 높은 곳에 있었던 불법을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할 것입니다. 또한 책 보다도 컴퓨터에 더욱 친숙한 젊은세대도 보다 용이하게 불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지적해야겠습니다.

김형균: 그 외에도 일반대중의 신앙생활이 더욱 윤택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찰에서 벗어나 컴퓨터 화면에도 부처님이 나타날 것이며 대장경 전산화로 편리하게 경전 열람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참석자

종림스님 (해인사대장경연구소 소장)
 합적스님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상태용씨 (건국대 교수·철학과)
 김형균씨 (불자사 대표)

사회/현기스님(해인사대장경연 기획실장)

□ 일시: 1995년 10월 31일 오후 5시
 □ 장소: 해인사대장경연구소 회의실

열려진 정보 활용이 관건 : 지원·참여 계속돼야

김형균: 저는 대장경 전산화가 '21세기 경전의 결집'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대장경 전체를 볼수있게 된 것은 집안에 부처님을 모시는 신앙적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사회: 지난 1년동안 사업을 주체적으로 이끈 종림스님께서는 고려대장경 초벌입력을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르실텐데 감회와 함께 대장경 전산화 동기를 밝혀주시죠.

종림: 그동안 불교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의 정보화 추세와 보조를 맞추는게 가장 시급한 길이라고 느껴 한글대장경 전산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려대장경의 초벌입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다른 것을 지켜보니 한글불교가 이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사찰 불교는 지금까지 정보사회 속에서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정보화 사회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전산화가 가져올 불교 내부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상태용: 정보화 사회란 모든 사람이 체계화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또한 홍수처럼 밀려오는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체계 역시 요구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불교가 사회변화 추이에 편승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보의 공유' 역시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을 강조해야겠군요. 다시말해 대중적인 정보사회로 지향할 수 있습니다.

사회: 성교수님의 정의를 좀더 확대하면, 자본주의 이념처럼 사유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따라 삶의 질이 변한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습니까. 따라서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정보의 윤리적인 측면도 고려해야겠습니까.

상태용: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가 전적으로 인간의 삶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보 사용의 불평등 구조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좋은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종림: 인간 자체의 삶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성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장경 전산화의 의의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김형균: 과거 일반대중들은 불교를 단지 전통문화에 국한하여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불교가 현대화·전산화 시대에 벗어나, 시대조류의 전라선에 서 있는 형국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불교 내부에서도 불교가 정보화 사회로 부터 고립된 원인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불교의 인식부족입니다. 또한 불교와 관련해 진행되는 일련의 정보화 작업이 있기는 하지만 불교의 특수한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어렵게 구축된 불교관련 정보가 단지 불교계 특수한 계층에 한정되어 공유되는 실정입니다.

사회: 정보사회에서 도태될 때 한 집단, 한 조직이 무너진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불교 역시 종단행정의 전산화를 시급히 꾀해야 하고 전문인이 앞장서 불교 정보화에 노력하여 불교 발전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결론에도 달했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서둘러야 할 것이 바로 '정보관리체계 확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형균: 정보관리체계라기 보다는 '정보 정리'가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상태용: 그렇습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이 급속히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에서 오래되고 소외된 자료는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불교는 여기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합적: '인간해방'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종림: '인간해방'이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자아, 새로운 관계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사회: '해방'이란 개념은 모든게 재편성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성교수님이 학계에 있어 불교의 변화상을 지적해 주시죠.

상태용: 한마디로 불교는 덕을 볼 것입니다. 불교관련 정보들이 전산화 되면 불교, 특히 경전에 대한 독단적인 해석이 불가능해 집니다. 또한 체계화된 불교정보의 공유로 인해 경전에 대한 창조적인 해석이 활발히 진행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현재 추진중인 '한글대장경 전산화'는 경전을 자유롭게 불러내고 비교 검증이 가능한 정보체계를 갖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자각적 경전 해석은 한편으로 위험한 발상도 아닐까.

종림: 다양한 해석은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사회: 불교에 대해 학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출판업계에는 적잖은 타격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김형균: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공통분모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대장경의 한글화 전산화는 불교언어의 표준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것입니다.

불교방송이 개국한 뒤 불교계의 가장 큰 변화로 지적된 것이 바로 불교언어 생활언어로 변화한 것은 좋은 예입니다.

상태용: 불교의 전산화는 당연히 체계적인 정보 구축과 표준화·개념화 및 불교언어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재가불자들의 심도있는 불교이해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불교계 전반적인 소양상승과 더불어 불교의 비약적인 발전을 예견하게 합니다.

사회: 지금까지 불교의 개념이 확실해지고 승가와 재가의 사상적, 학문적 울타리가 없어지는 등 불교 전산화가 학계, 출판계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진단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종단, 작가는 종무행정에서 서도 개혁의 단초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면을 기대해볼 수 있겠는데요.

합적: 개편되죠. (일동 웃는다) 특히 종무행정에 있어 예산절감, 시간절



△ 사회 현기스님

합적: 그렇습니다. 교학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불교의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행 존중받는시대 도래

김형균: 저는 대장경 전산화가 '21세기 경전의 결집'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대장경 전체를 볼수있게 된 것은 집안에 부처님을 모시는 신앙적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사회: 지난 1년동안 사업을 주체적으로 이끈 종림스님께서는 고려대장경 초벌입력을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르실텐데 감회와 함께 대장경 전산화 동기를 밝혀주시죠.

종림: 그동안 불교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의 정보화 추세와 보조를 맞추는게 가장 시급한 길이라고 느껴 한글대장경 전산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려대장경의 초벌입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다른 것을 지켜보니 한글불교가 이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사찰 불교는 지금까지 정보사회 속에서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정보화 사회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전산화가 가져올 불교 내부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상태용: 정보화 사회란 모든 사람이 체계화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또한 홍수처럼 밀려오는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체계 역시 요구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불교가 사회변화 추이에 편승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보의 공유' 역시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을 강조해야겠군요. 다시말해 대중적인 정보사회로 지향할 수 있습니다.

종림스님
 한국불교 세계화로 학문발전 기대

향적스님
 종무 전산·실용화 기회삼아야

성태용씨
 경전 창조적 재해석 가능

김형균씨
 불교용어 표준화 대중의 정보공유

'21세기 경전 결집' ... 윤택한 신앙생활 보장

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종림: 인간 자체의 삶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성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장경 전산화의 의의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김형균: 과거 일반대중들은 불교를 단지 전통문화에 국한하여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불교가 현대화·전산화 시대에 벗어나, 시대조류의 전라선에 서 있는 형국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불교 내부에서도 불교가 정보화 사회로 부터 고립된 원인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불교의 인식부족입니다. 또한 불교와 관련해 진행되는 일련의 정보화 작업이 있기는 하지만 불교의 특수한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어렵게 구축된 불교관련 정보가 단지 불교계 특수한 계층에 한정되어 공유되는 실정입니다.

사회: 정보사회에서 도태될 때 한 집단, 한 조직이 무너진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불교 역시 종단행정의 전산화를 시급히 꾀해야 하고 전문인이 앞장서 불교 정보화에 노력하여 불교 발전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결론에도 달했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서둘러야 할 것이 바로 '정보관리체계 확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형균: 정보관리체계라기 보다는 '정보 정리'가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상태용: 그렇습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이 급속히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에서 오래되고 소외된 자료는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불교는 여기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합적: '인간해방'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종림: '인간해방'이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자아, 새로운 관계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사회: '해방'이란 개념은 모든게 재편성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성교수님이 학계에 있어 불교의 변화상을 지적해 주시죠.

상태용: 한마디로 불교는 덕을 볼 것입니다. 불교관련 정보들이 전산화 되면 불교, 특히 경전에 대한 독단적인 해석이 불가능해 집니다. 또한 체계화된 불교정보의 공유로 인해 경전에 대한 창조적인 해석이 활발히 진행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현재 추진중인 '한글대장경 전산화'는 경전을 자유롭게 불러내고 비교 검증이 가능한 정보체계를 갖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자각적 경전 해석은 한편으로 위험한 발상도 아닐까.

종림: 다양한 해석은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사회: 불교에 대해 학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출판업계에는 적잖은 타격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김형균: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공통분모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대장경의 한글화 전산화는 불교언어의 표준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것입니다.

불교방송이 개국한 뒤 불교계의 가장 큰 변화로 지적된 것이 바로 불교언어 생활언어로 변화한 것은 좋은 예입니다.

상태용: 불교의 전산화는 당연히 체계적인 정보 구축과 표준화·개념화 및 불교언어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재가불자들의 심도있는 불교이해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불교계 전반적인 소양상승과 더불어 불교의 비약적인 발전을 예견하게 합니다.

사회: 지금까지 불교의 개념이 확실해지고 승가와 재가의 사상적, 학문적 울타리가 없어지는 등 불교 전산화가 학계, 출판계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진단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종단, 작가는 종무행정에서 서도 개혁의 단초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면을 기대해볼 수 있겠는데요.

합적: 개편되죠. (일동 웃는다) 특히 종무행정에 있어 예산절감, 시간절

할 것이 바로 '정보관리체계 확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형균: 정보관리체계라기 보다는 '정보 정리'가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상태용: 그렇습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이 급속히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에서 오래되고 소외된 자료는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불교는 여기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합적: '인간해방'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종림: '인간해방'이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자아, 새로운 관계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사회: '해방'이란 개념은 모든게 재편성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성교수님이 학계에 있어 불교의 변화상을 지적해 주시죠.

상태용: 한마디로 불교는 덕을 볼 것입니다. 불교관련 정보들이 전산화 되면 불교, 특히 경전에 대한 독단적인 해석이 불가능해 집니다. 또한 체계화된 불교정보의 공유로 인해 경전에 대한 창조적인 해석이 활발히 진행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현재 추진중인 '한글대장경 전산화'는 경전을 자유롭게 불러내고 비교 검증이 가능한 정보체계를 갖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자각적 경전 해석은 한편으로 위험한 발상도 아닐까.

종림: 다양한 해석은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사회: 불교에 대해 학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출판업계에는 적잖은 타격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김형균: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공통분모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대장경의 한글화 전산화는 불교언어의 표준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것입니다.

불교방송이 개국한 뒤 불교계의 가장 큰 변화로 지적된 것이 바로 불교언어 생활언어로 변화한 것은 좋은 예입니다.

상태용: 불교의 전산화는 당연히 체계적인 정보 구축과 표준화·개념화 및 불교언어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재가불자들의 심도있는 불교이해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불교계 전반적인 소양상승과 더불어 불교의 비약적인 발전을 예견하게 합니다.

사회: 지금까지 불교의 개념이 확실해지고 승가와 재가의 사상적, 학문적 울타리가 없어지는 등 불교 전산화가 학계, 출판계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진단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종단, 작가는 종무행정에서 서도 개혁의 단초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면을 기대해볼 수 있겠는데요.

합적: 개편되죠. (일동 웃는다) 특히 종무행정에 있어 예산절감, 시간절

심시요.

종림: 불교가 전산화 되면 모든 사부대중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 시말해 지금까지 지속된 불교의 약속과 교학의 관점에서 탈피해 진정한 부처님 법인 '인간해방'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개된 장소에서 불교 교리의 검증이 가능해 기존 관념들이 사라지고 불교의 '학'적인 새로운 개념이 생겨날 것입니다.

합적: 인간해방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종림: '인간해방'이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자아, 새로운 관계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사회: '해방'이란 개념은 모든게 재편성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성교수님이 학계에 있어 불교의 변화상을 지적해 주시죠.

상태용: 한마디로 불교는 덕을 볼 것입니다. 불교관련 정보들이 전산화 되면 불교, 특히 경전에 대한 독단적인 해석이 불가능해 집니다. 또한 체계화된 불교정보의 공유로 인해 경전에 대한 창조적인 해석이 활발히 진행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현재 추진중인 '한글대장경 전산화'는 경전을 자유롭게 불러내고 비교 검증이 가능한 정보체계를 갖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자각적 경전 해석은 한편으로 위험한 발상도 아닐까.

종림: 다양한 해석은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사회: 불교에 대해 학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출판업계에는 적잖은 타격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김형균: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공통분모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대장경의 한글화 전산화는 불교언어의 표준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것입니다.

불교방송이 개국한 뒤 불교계의 가장 큰 변화로 지적된 것이 바로 불교언어 생활언어로 변화한 것은 좋은 예입니다.

상태용: 불교의 전산화는 당연히 체계적인 정보 구축과 표준화·개념화 및 불교언어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재가불자들의 심도있는 불교이해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불교계 전반적인 소양상승과 더불어 불교의 비약적인 발전을 예견하게 합니다.

사회: 지금까지 불교의 개념이 확실해지고 승가와 재가의 사상적, 학문적 울타리가 없어지는 등 불교 전산화가 학계, 출판계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진단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종단, 작가는 종무행정에서 서도 개혁의 단초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면을 기대해볼 수 있겠는데요.

합적: 개편되죠. (일동 웃는다) 특히 종무행정에 있어 예산절감, 시간절

사회: 불교에 대해 학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출판업계에는 적잖은 타격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김형균: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공통분모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대장경의 한글화 전산화는 불교언어의 표준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것입니다.

불교방송이 개국한 뒤 불교계의 가장 큰 변화로 지적된 것이 바로 불교언어 생활언어로 변화한 것은 좋은 예입니다.

상태용: 불교의 전산화는 당연히 체계적인 정보 구축과 표준화·개념화 및 불교언어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재가불자들의 심도있는 불교이해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불교계 전반적인 소양상승과 더불어 불교의 비약적인 발전을 예견하게 합니다.

사회: 지금까지 불교의 개념이 확실해지고 승가와 재가의 사상적, 학문적 울타리가 없어지는 등 불교 전산화가 학계, 출판계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진단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종단, 작가는 종무행정에서 서도 개혁의 단초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면을 기대해볼 수 있겠는데요.

합적: 개편되죠. (일동 웃는다) 특히 종무행정에 있어 예산절감, 시간절

사회: 불교에 대해 학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출판업계에는 적잖은 타격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김형균: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공통분모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대장경의 한글화 전산화는 불교언어의 표준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것입니다.

불교방송이 개국한 뒤 불교계의 가장 큰 변화로 지적된 것이 바로 불교언어 생활언어로 변화한 것은 좋은 예입니다.

상태용: 불교의 전산화는 당연히 체계적인 정보 구축과 표준화·개념화 및 불교언어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재가불자들의 심도있는 불교이해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불교계 전반적인 소양상승과 더불어 불교의 비약적인 발전을 예견하게 합니다.

사회: 지금까지 불교의 개념이 확실해지고 승가와 재가의 사상적, 학문적 울타리가 없어지는 등 불교 전산화가 학계, 출판계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진단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종단, 작가는 종무행정에서 서도 개혁의 단초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면을 기대해볼 수 있겠는데요.

합적: 개편되죠. (일동 웃는다) 특히 종무행정에 있어 예산절감, 시간절

도움주실 분을 모십니다

14세 중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한 신체 장애자의 어머니입니다. 집안형편이 넉넉지 못하여 충분한 병수발도 해주지 못하는 터에 학교통학만이라도 좀 편하게 해주고픈 마음에 아이를 '태우고 다닐 수 있는 차량'으로 도움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마음으로 도움 주실 분자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454-3059

사찰에 주석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귀의 삼보하루고 70년 노거사입니다. 본인은 일찍이 불행종포에 원력을 세운 바 중추계명산에 사찰건립의력을 발견하고 일심으로 불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굴본존, 해수관음, 아미타불, 5층석탑, 요사채가 완공이 되어 최초계획의 70%가 완성되었으나 가장 중심이 될 대웅전 건립을 앞두고 불사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간절한 마음으로 '불사완성에 참여하실 스님, 독지가'를 구하오니 인연 닿으신 분께서 연락을 주시면 참여조건을 몇 가지로 의논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41-851-3888(집주식) / 041-853-2888(사무실 12시)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

한글반 2회시험 4월·8월

결정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고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화 졸업과정 ○ 쉽게 배우는 '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대학 졸업과정 ○ 원거면 1:1 '담당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신영희(72세, 할머니): 중·고과정(24개월)

박은희(45세, 주부): 중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중·고·대과정(36개월)

특전: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 (영·수) '비대외'정교사, 특별재공

월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최저 (남, 27세) 드림

대한교육평가원

상담전화(비밀보장) 02)766-9090 (저녁 9:00까지 접수)

(수신자 부담) 크로바서비스 080-023-4600